

2023년 10월 15일(주일) 제1652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2023 사명자대회 - 조용한 기도의 시간

2023 사명자대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입니다.

서울교회 설립 당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를 지향하는 서울교회를 세우면서 7주간의 특별기도로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 50일간 사명자대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사명자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성경읽기와 기도운동을 펼치는 2023 사명자대회를 진행 중

입니다.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매일 성경읽기표 일정에 맞춰 말씀을 읽고, 매일 자율기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도하며, 매일 낮 12시, 3분 이상 50일간 기도하면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자율기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어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누구나 웨스트민스터홀을 개방하였으니 새벽기도 이후부터 저녁 9시까지 언제나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

10.21(토), 11.11(토)

오전 11시-12시 온라인으로 2회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가 10.21(토), 11.11(토), 오전 11시-12시 온라인으로 2회 진행됩니다. 온라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https://meet.google.com/iei-obmw-fhs>

대입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

대입수능 당일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수능 마치는 시간까지 교회에서 종일 기도회를 갖습니다. 장소는 웨스트민스터홀입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10일(화) 베델하우스에서 아브라함선교회와 사라전도회의 야외예배에 100여 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어른들로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화) 소망교회에서 열린 서울강남노회 제73회 정기대회에서 우리 교회 최종국 전도사님(초등부 지도)께서 목사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목사안수를 받음에 따라 우리 교회 부목사로 시무하게 되십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깊은 밤이 지난 후

(창 32:26-32)



손달익 위임목사

형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갔던 야곱은 객지에서 적잖게 고생은 했지만 대신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얻었으며 귀향을 시도할 만큼의 자신감과 용기를 갖춘 유목민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귀향을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압복 강에 이르러 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20년 전의 원한을 갚기 위해 군사 400명을 준비하여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희망과 부푼 꿈을 가졌던 가나안의 새로운 삶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은 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1. 무능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중 강 건너에 에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압복강 앞에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강 건너편의 에서의 표정을 살피기 위해 먼저 사절단을 보냈고 돌아온 이들은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 대해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6절)라고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빠진 야곱은 한편으로 나름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겁니까? 먼저 그의 지난날의 과오로 인한 형의 분노가 무서웠을 것이고, 20년 만에 돌아온 그에게는 마땅히 그를 도와줄 다른 부족이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그를 더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범죄자의 본능적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잠 28:1)는 말씀처럼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불안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가 이제는 엄청난 가족을 거느린 족장이 되어 있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에 빠져 있는 것은 위기 상황 앞에서 있는 자신의 무능한 모습만 생각하는 그의 신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보잘 것 없는 모습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보잘 것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배워서 알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에 부딪치면 두려움에 압도 당하고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는 엄청나 보이고, 자신은 미약하고 왜소하게 느껴집니다. 반복되는 시련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마치 수렁에 빠진 느낌을 가지게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보잘것없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야곱에게는 씻지 못할 과거가 있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과 함께 하였고, 도우시고, 지키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며 미련하고 부족하며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님은 이런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십니다.

2.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한 방문자를

만나게 됩니다.(24절) 그와 야곱은 밤을 새워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셀 때 그가 가려하자 야곱은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며 그에게 매달립니다. 야곱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할 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한 것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씨름은 밤을 새운 야곱의 필사적 기도였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강 건너편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이 질문은 '너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았으며 사람들에게 보여진 네 인격은 어떤 것이냐?'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발꿈치, 험잡꾼, 술수에 능한 자, 찬탈자 등의 이미지를 가진 뜻이었습니다. 야곱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씨름에서 하나님은 한 순간에 야곱을 제압하시지 않으셨습니

야곱이 과거를 청산한 것처럼
우리도 속사람과 인격이 새로워진
새 피조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복 강의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 야곱의 앞길에 해가 뜰게 하셨듯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을 결단하는
우리 앞길에도 희망의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다. 오히려 밤새 시간을 끄시며 야곱을 서서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교활하고 술수에 능한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살길임을 다시 철저히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내면의 변화를 감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허락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인,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과거를 청산한 것처럼 우리도 속사람과 인격이 새로워진 새 피조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복강의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 야곱의 앞길에 해가 뜰게 하셨듯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을 결단하는 우리 앞길에도 희망의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3. 회개를 실천하는 야곱

길고 힘든 밤을 보낸 후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절뚝거리며 자기 길을 걷게 됩니다.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그는 이제 20년 된 마음의 숙제를 풀기 위해 에서를 찾아갑니다. 에서는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숨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에서에 다가갔습니다. 이 모습은 패전한 장수의 항복 선언과도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보여준 교활함, 술수, 임기응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진정성, 겸손, 상대에 대한 존중의 모습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은 모든 인간관계를 일회용 거래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할 뿐 누구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질주하듯 살면서 후회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모습에는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의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 앞에 겸손할 줄 아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에 칼을 들고 기다리던 에서도 감동받았습니다. 야곱은 회개했고 에서는 용서했으며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깊은 밤 압복강에서 야곱이 재발견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죄와 허물투성이의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회개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의 앞길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회개의 삶을 실천할 때 영광스런 삶이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즈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시금 불등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밤을 그치게 하시고 새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전도하신 예수님처럼



채교천 안수집사
(2023 사명자대회
기도분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 절)

"예수님께서 나를 찾
아오셔서 영접한 후 소
명을 받고 나는 과연 지
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들을 하였을까?!"

부끄럽게도 그 대답은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
였습니다.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것이 없기 때

문입니다. 부르심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저에게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게 하시
고 또 성령님을 보내시어 저의 발을 잡아 첫걸
음을 떼게 하시려고 과분하게도 사명자대회의
기도분과를 맡기어 보내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있
었던 강도들의 행위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
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신 사역은 강도를 전도하신 것이
였습니다. 처음에는 좌·우의 두 강도 모두 예
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던 한쪽 강도가
어느 사이 예수님의 지난 역사에 은혜를 받고
감동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다른 측의 강도의
잘못에 대하여 권면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

는 날 자기를 기억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
었습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은 기뻐 그를 축복
하시었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강도의
고백은 성경에 남아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게
증거 되어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저도 다른
쪽 강도와 같은 이웃과, 모르고 침 뱉고 창으
로 찌른 로마병사와 같은 이웃들에게 그리스
도의 향기 나는 이 강도와 같은 고백을 성령님
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외람되지만, 요한복음 17장 전장을 읽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부르시고 보내주시는 성부·
성자·성령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에스더전도회 특강

행복한 나, 더 행복한 자녀



정윤희 권사
(마리아전도회
회장)

안녕하세요!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2023년을 마무리하며 마
리아전도회에서 외부 강
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기신 자녀들을 과연
칭지기로서 잘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

전문 강사님을 초빙하여 자녀 양육의 지혜와
통찰력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행복한 나와 더불어

자녀들이 더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귀한 나
눔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리아 회원들뿐만 아니라 행복한 나와 더
행복한 자녀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
대하며 주위에 관심 있는 지인분들에게도 알
리셔서 함께 참석하신다면 서울교회가 이웃에
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긍정적인 이미지
로 자리매김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
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석 부탁드립니다.

- 강좌 제목: 행복한 나, 더 행복한 자녀
- 일시: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교회 501호실

-강사소개-



- 강사: 주혜주 대표 (마음극장 심리코칭 연구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사석사박사 취득
- 서울대학교 성인정신과 병동, 소아정신과 병동 근무
- 경인여자대학교 정신간호학교수역임
- 인천광역시 정신간호사회 회장역임
- 저서: '마음극장' 인물과 사상사
'마음극장, 그후' 담음출판사

마리아전도회 특강

행복한 나 더 행복한 자녀

일시 : 10월 21일(토) 오후 2:00
장소 : 501호
대상 : 관심있는 전 교인



주혜주 대표
(전)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현) 마음극장 심리코칭 연구소 대표
*강의 후 질의 문답시간이 있습니다.

살롬경로대학 교사 모집

내년 2024년 살롬경로대학에서 봉사할 교
사를 찾습니다. 모집 분야는 오카리나, 우쿨렐
레, 하모니카 등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유미 성도 (3교구)



오랜 직장 생활의 슬럼프, 사춘기 자녀 양육의 고단함,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 등...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저를 서울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제게 5주간 참여한 새가족교육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의 실제 내용, 교회생활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막연하게 주뻗거리며 시작한 신앙생활은 부담 없이 교회와 가까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주 동안 항상 좋은 말씀과 환한 낮으로 교육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박미라 전도사님, 나현주 교사님, 서희숙 교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새벽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제가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가지기 시작한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신앙생활을 위해 지난 5주간의 새가족교육을 기반 삼아 꾸준히 노력하려 합니다.

서울교회로 인도해 주신 김창훈 집사님과 매일 아침 단톡방으로 성경 말씀 전해주시는 3-8 다락방장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첫사랑의 회복

김성훈 성도(4교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개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및 믿음과 구원에 대한 소개는 그 옛날 첫사랑에 대한 생각을 간절하게 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가운데 상당 기간 동안 드러보지 못했던 깊은 기도와 목사님의 깊이 있는 설교 말씀을 듣고, 실로 오랜만

에 부른 '송영' 찬송가에는 희열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장로님, 권사님들의 친절한 인도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가족교육을 마치며 많은 교인들과의 친교와 기쁘고 열매 맺는 교회 생활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던 지난 날

한정애 성도(4교구)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1984년 서울을 떠나서 이곳저곳에서 살게 되었고, 또 중간에는 서울에도 올라와 5년 정도 살았습니다. 교회도 같이 옮겨 다니게 되었는데 2020년 3월 코로나가 시작되는 날 대구에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래 떠나있던 서울은 많이 변했고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로 교회를 정하지 못하다가 올해 4월부터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새가족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천국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65세가 넘고 보니 여러 일들이 스쳐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했을까? 하는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새가족교육 5주를 하면서 다시 저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 시간을 위해 찬양으로, 매주 문자를 보내주시며 도와주시는 권사님들, 매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이 한 새가족들도 함께 해서 더 좋았고 새가족부실에 더 많은 새가족들이 함께 하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회복지의 시작



김활란



태화여자관의 어린이 건강진단



태화여자관에서 시행한 우유급식



마렌 보딩과 조선의 어린이

한국의 사회복지사업에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지역사회 곳곳에 복지기관을 설치하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가가 제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던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내한 선교사들의 사회복지사업은 1920년대에 들어서 활발해졌다. 선교 초기에는 교육과 의료, 전도에 전념하느라 사회복지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1921년 미국 감리회 여성들의 후원에 힘입어 태화여자관으로 출발한 것이 한국 기독교의 사회복지, 나아가 한국 사회복지 역사의 시작이다. 당시 사회문제는 다양했지만 역시 억압되어 있는 여성들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한국의 기독교 사회복지가 여성복지로 시작하였다.

김활란은 1934년 감리회 한국선교 50주년 기념식에서 감리회가 한국 여성에 끼친 영향으로 첫째, 말씀, 둘째, 가정생활의 변화, 셋째, 여성병원·유아복지·공중보건 사업, 넷째, 여성교육을 뽑았다. 김활란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의 복지는 사실 유아복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복지는 곧 모자복지(母子福祉)와 유아복지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의 유아복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1926년 8월 24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1921년부터 1925년 사이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49.6%였다. 둘 중 하나가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는 끔찍한 수치이다. 아동 사망 원인은 소화기 계통의 병, 호흡기 병, 신경계 병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양 결핍에 있었다. 선교사들은 이 영양

결핍과 그로 인한 유아 사망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했다.

1923년 미감리회 해외여성교회 파송으로 내한한 마렌 보딩(Maren Bording)은 공주 지역 의료선교사인 파운드(Norman Found)의 조수 역할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보딩은 파운드와 왕진을 다니다가 아기들이 열악한 건강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1924년 특별한 지원조직도 없이 개인적으로 유아복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시작은 병원 한 칸에서 유아진료를 보는 것이었다. 그러다 아이를 위해 뭐라도 더 배우고 싶었던 어머니를 모아 '자모회'를 만들고 위생과 육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의 사망률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영양부족으로 인한 질병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보딩은 한국에서 우유가 음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하루 1-2병의 우유를 먹일 수만 있다면 아기들을 질병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우유급식을 위해서는 우유병과 젓꼭지의 소독 시설을 갖춘 건물이 필요했다. 그는 이 공간을 위해 병원의 간호사, 성경부인과 함께 특별기도회를 갖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미감리회 여성선교사회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의 어느 노신사가 기부를 약속했다는 소식이었다. 보딩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기뻐했다.

1926년 6월 공주에 한국 최초의 우유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보딩의 판단은 정확했다. 1927년 보딩은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자신의 유아복지와 우유급식사업 대상인 아이들의 사망률을 5%라고 보고하였다. 비슷한 시기 서울의 유아사망률 50%와 비교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었다. 효과가 확인되자 1928년 서울과 평양에서도 선교사들에 의해 우유급식이 시작되었다. 평양의 어떤 어머니는 이미 아이

들을 잃고 세 번째 아이마저 잃을 수 없다는 일념에 하루에 세 번씩 우유를 타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다. 우유를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한국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우유급식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는 젓소가 몇 마리 없어 우유를 전부 수입해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유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아기 한 명을 입양 결연하여 우유급식 비용을 대주었다. 한국인 고위관리나 지방 경찰서도 후원에 동참했다. 역시 아이들을 살리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다.

선교사들은 부족한 우유 대신 염소의 젖을 이용하거나 두유를 만드는 식으로 우유급식사업의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맸다. 더 많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려면 비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10년 뒤인 1938년 태화복지관의 로젠버거(E. T. Rosenberger) 선교사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액체와 분말 두유를 도입하여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기위해 노력했다'면서 "현재 분말 두유는 한국 전 지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선교사들의 노력이 한국 아동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다.

우유급식사업이 단지 유아의 사망률만 낮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멘트(Charles C. Amendt) 선교사는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 부모들의 마음을 냉랭한 채로 두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우유급식사업이 복음전도에 끼칠 긍정적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우유급식사업은 아이의 건강과 부모의 영혼을 모두 구했다. 사랑이라는 게 늘 그렇다.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더 큰 열매를 맺는다.

동정

- 사찰경비로 근무하던 정재우 집사가 사직하고 후임으로 임낙식 집사가 10월 1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식사 제공

- 조정식 은퇴장로 ·김영식 은퇴권사 가정,
김희동 은퇴안수집사 ·김춘호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가을학기

-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10시간기준)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 2. 23년도 가을학기:
10. 7일(토)-12.10 (주일), 10주
-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
- 4. 문의 및 신청:남재은 집사
(010-9189-8019)
- 5. 구글신청서 양식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505	장윤식 집사
	통기타	주일	12:40-	10주	605	박민서 집사
		토	11:00-	10주	505	김상운 선생
	베이스기타	토	12:20-	10주	505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회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연기	찾아가는 힐링연기	목	20:00-(120분)	5주	702	박재현 배우
미술	비단부채에 피는 모란 (비단채색화)	주일	14:00-(100분)	5주	704	유은경 집사

70인전도대 10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 (오후 1시-2시)	수	전도회 (오후 1시-2시)	토	선교회 (오후 1시-2시)
10.1	자원자	10.4	도르가, 루디아, 뵤뵤	10.7	빌립, 안드레, 베드로
10.8	자원자, 마리아	10.11	한나	10.14	바울, 엘리야
10.15	자원자	10.18	에스터	10.21	모세
10.22	자원자	10.25	리브가	10.28	이삭
10.29	자원자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10월16일	월	눅 1		10월16일	월	사 50-59	
10월17일	화	눅 2-3		10월17일	화	사 60-66	
10월18일	수	눅 4-6		10월18일	수	렘 1-9	
10월19일	목	눅 7:1-8:21		10월19일	목	렘 10-15	
10월20일	금	눅 8:22-9:62		10월20일	금	렘 16-23	
10월21일	토	눅 10-11		10월21일	토	렘 24-30	
10월22일	주일	눅 12-13		10월22일	주일	렘 31-36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신실하게, 말씀 실천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소서.
-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 전쟁과 분쟁,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도우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